News p/2

청년 일자리법안이라도…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제3223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7

영화 '무뢰한' 전도연

無權구속 有權불구속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진태 검찰총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홍준표 알리바이 조작 검찰, 공소장 부실기재로 대응? 구속영장은 청구할 생각도 안해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불구속 무권구속'(권력자는 불구속, 서민들은 구속)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 등이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확고한 원칙이고 관행이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완구 총리 등이 알리바이 조작이나 증인 회유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두루뭉술하게 적시하거나, 아예 공소장을 비 공개한 뒤 공판과정에서 돈 받은 시점과 장소 등을 공개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전달방식 등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법조계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정도를 외면하고 일종의 '꼼수'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온다.

더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헌법이나 형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알리바이조작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공소장을 부실기재하거나 비공개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일정을 관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 등이 구속됐다. 그 이유도 '증거인멸 혐의'였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 기준이 2억원이다. 9억원의 혐의를 받은 한명숙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입법로비 등으로 구속된 조현룡, 김재윤 의원은 2억원보다 적게 받았는데도 구속 된 사례가 있다. 이는 뇌물이고 이 전 총리 등은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공소사실을 애매하게 쓰거나 생략하면 안된다.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한 뒤 공판에 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朴 "청년 일자리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

내일 본회의 앞두고 국회에 호소… "젊은이에게 희망 줘야"

5월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여야에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 간) 모두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년 4월 청년 실업률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했고, 취직을 못해 휴학한 대학생은 45만 명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턴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턴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선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선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이 소중한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며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를 재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두고 '기성세대의 소명의식과 용기'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다시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각 부처 장관들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 업무란 생각을 갖고 부문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개혁 기치 다시 내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다. 경제 활성화와 4대구조개혁을 추진할 내각의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복지, 교육 구조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황 후보자가 이 같은 막중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 '토네이도' 재난사태 선포 미국 텍사스주에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풍이 덮치면서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 그레그 에보트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주내 24개 카운티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사진은 오스틴에서 급류에 쓸려가다 철망 울타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던 주민이 보트를 타고 긴급출동한 구조대원들에게 구출되는 모습. /연합뉴스

北, 연평도 앞 방사포 진지 완공… '우리 함정 기습' 위험

북한이 연평도 앞 무인도인 갈도에 지난 3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122㎜ 방사포 진지를 완공했다. 지난 8일 북한은 우리 해군함정이 자신들이 정한 해상분계선을 넘을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측이 정한 해상분계선은 우리가 관할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아래에 있다. 북한의 방사포 진지 완공은 NLL 이내의 우리 함정을 기습 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갈도에 벙커 형태의 5개의 유개화(덮개가 있는) 진지를 완공했다. 당국은 이들 시설이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해상을 초계하는 우리 함정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로 이용하거나 122㎜ 방사포를 배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를 공격할 때 동원한 공격무기이다. 이 방사포의 로켓 포탄은 길이가 2.87m이고 탄약 1발의 중량은 66.3㎏이다. 연평도에서 불과 4.5㎞ 떨어진 갈도에 122㎜ 방사포 진지가 완전히 구축되면 연평도 해병부대뿐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계하는 유도탄 고속함 등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122㎜ 방사포 사거리를 고려하면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최대 16㎞ 떨어진 해상을 초계(감시·경계)하는 우리 함정까지 타격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우리 함정의 초계 방식이나 대비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이라크의 명운 걸린 '라마디 대첩' 임박

이라크의 명운이 걸린 이른바 '라마디 대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라마디를 빼앗긴 뒤 미국과 이라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이라크의 자구능력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는 그 동안 IS에 맥없이 밀리기만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라마디를 수일 내로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트는 라마디 탈환을 위해 시아파 민병대의 참전을 요청, 민병대 병력 2만여명이 라마디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라크 패잔병들과 이란 영향력 하의 시아파 민병대, 미군의 공습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가히 대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규모다.

이들은 이전까지 모두 제각각 작전을 펴 왔다. 라마디 점령으로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첩의 결과에 따라 이라크 정부의 명운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동정책마저 달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IS의 국가 설립 선포 이후 꼭 11개월째 시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IS는 3월 말 이라크 북부 요충지 티크리트를 빼앗긴 뒤 4월 중순부터 라마디에 화력을 집중해 한 달 만에 이곳을 점령했다. 이어 시리아 고대도시 타드무르(팔미라),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동부를 잇는 국경도시 알왈리드와 알타나프를 장악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대부분이 IS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다. /송병형기자

황교안 모셨던 檢 출신 박민식도 "경제는 걱정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법조인 출신이라 정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일 큰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현역의원의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온 말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황 후보자를 차장검사로 모시고 일했던 박민식 의원의 말이다.

박 의원은 26일 방송에 출연해 "(황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판단 부분에 대해선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히려 경청할만 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총리가 각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은 경력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율능력, 통할능력,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변론을 붙이기는 했다.

박 의원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 도청사건을 수사할 때 주임검사로 실무수사를 맡았다. 황 후보자는 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다. 2006년 황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을 때 박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문형표식 꼼수증세 들통… 설마 술값도?

‘복지는 경제에 걸림돌’ 재정전문가… 담뱃값 증세 덜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을 울리는 꼼수증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 장관은 복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앞으로도 문형표식 꼼수증세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미 문 장관은 술값 인상을 공언한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배 판매량은 지난 1월 1억7000만갑에서 2월에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 담뱃세(한갑당 3323원)가 지난해 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담배세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담배는 대표적인 서민의 기호품이다. 담뱃세는 소득재분배 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문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재정전문가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말이 나왔다. 복지정책을 재정관리로 초점을 바꾸기 위한 인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경제성장에 이롭지 않고, 따라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복지전문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전임자인)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문 후보자 내정은 복지 확대에서 재정 관리로 초점을 바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에도 적극적이다. 문 장관은 지난 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 치료 예방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리의 판박이다.

야당에서는 문 장관의 꼼수증세에 제동을 걸 태세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재벌 총수나 서민이나 똑같이 내는 담뱃값을 늘려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꼼수 증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담뱃값 인하를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해임론에 휩싸인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론이 야당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장관이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2의 세월호법 시행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26일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 “경쟁해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명령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일정 기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 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가 소비자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내용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쳤으나 적격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는 알뜰폰에 대한 추가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멕시코시티서 우버택시 항의 시위 멕시코 택시기사 노조원들이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우버 택시 운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우버는 가라’는 문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사회적 기구가 검증

여야가 앞으로 설치할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 담당자인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추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추인이 예상된다. 규칙안은 지난 주 조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의해 각 당에 보고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기구에서 적시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존 문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김서이기자

26일 민주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국회 앞 기자회견. /뉴시스

차터, 61조원에 타임워너 인수하나

美 방송업계 지각변동

미국 타임워너케이블과 차터커뮤니케이션의 합병 임박설이 전해지면서 미국 방송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견하는 현지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내 업계 2위인 타임워너는 미국 24시간 뉴스전문채널 CNN과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료케이블채널 HBO를 운영하는 글로벌 회사다. 업계 1, 2위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에 뒤져 있던 차터가 타임워너를 인수한다면 컴캐스트와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된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차터는 프랑스 알티스를 제치고 타임워너 인수에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합병 합의 발표가 26일 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총 인수대금은 현금과 주식을 합쳐 551억 달러(60조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195 달러다. 지난 22일 주식종가인 약 171 달러보다 웃돈이 붙었다.

업계 4위 수준이던 차터는 지난달 6위 업체인 브라이트 하우스를 104억 달러(11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타임워너까지 합치면 케이블TV 가입자 수만 15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1위인 컴캐스트의 2240만명을 바짝 추격하게 된다. 앞서 컴캐스트는 지난 4월 타임워너를 인수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다가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우려로 인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차터는 컴캐스트에 밀렸다가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미국 내 업계는 차터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로 전통적인 유료 케이블TV 사업은 위협받고 있다.

/송병형기자

‘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 오늘 첫 재판

소비자 119

결과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영향 미칠 듯

고객 정보유출로 기소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가 논란 끝에 법의 심판대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결과가 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다.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 8일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발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불구속 기소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셈이다.

그간 3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를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으로 볼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수단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카드사들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출과정에서의 신용카드사의 과실여부다. 합수단은 카드 3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도 카드사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는 카드사들이 유출자의 정보유출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정보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권역별 집계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청구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이 1인당 100만원, 총 55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여간 변론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재판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배상 청구 대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카드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 입증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한도·이용액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보를 빼간 용역업체 직원은 구속됐고, 카드 3사 사장 등 3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대법원 ‘전문법원제도·형사 전문 법관’ 도입 추진

대법원이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제도와 형사 전문 법관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심 법원 전문성 강화와 민·형사 법관 분리와 전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거래나 증권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특정법원에 집중시키고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해 해당 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증권은 서울남부지법, 언론은 서울서부지법, 해사사건은 부산지법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민사와 형사의 사무 분담을 장기화해 각 분야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달 18일 열릴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전문가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는 전문심리관 제도와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의문도 의결했다.

/연미란기자

식약처, 백세주 판매중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26일 서울 한 마트에서 시민이 백세주를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백세주의 원료 시료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확정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사진)씨가 국가로부터 총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관결이 같은달 23일 확정됐다.

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관결했고, 2심은 김씨 측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 간 복역했다.

또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관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이홍원기자 hong@

헌재,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내일 판가름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가 헌법재판소(사진)에서 가려진다.

28일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외노조 관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연미란기자

식약처 "백수오 제품 중 5% 만 진짜"

전수조사 결과 207개 중 10개 이엽우피소 미검출
검출제품 전량 회수 조치·건기식 제도 손질 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오후 2시 식약처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백수오 파문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제외되고 부분적 제도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6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백수오 사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건기식 제도 개선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하지만, 이런 조처가 건강기능식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소비자 마음을 돌리기에는 얼마나 충분할지는 의문이다"며 "식약처가 백수오사태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새정연 의원들 "成리스트 봐주기 도 넘었다"

대검 항의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26일 전병헌·이춘석·임내현·서영교·진성준·진선미 의원 등 17명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이완구·홍준표는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은 5천만원으로도 의원회관에 체포조를 투입하거나 구속영장을 수도 없이 청구했다"며 '수수액이 2억원 이하여서 불구속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조금이라도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면 구속했을 검찰이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속하는 것은 균형 없는 수사"라며 "이 문제를 항의하고 검찰의 입장을 들은 뒤 특검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대선 자금 문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들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와 이금로 기획조정부장 등을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미란기자 actor@

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전직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조폭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부터 12월까지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거짓말을 해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자신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뒤였다.

진씨와 이씨는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고 겁먹은 정 전 의원은 돈을 건넸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미란기자

상명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가

지난 5월 2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상명대 디자인대학창의디자인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소속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과 SLD(smart living design) 연계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태양광 응용제품 개발 학생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단장 강성해교수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이며 특성화 사업단의 부단장인 전재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참신함과 열정을 담은 태양열 자전거 스테이션, 태양열 가로등, 태양열 휴대폰 충전시스템 디자인을 제안했다.

상명대 출품작.

학생들은 땀흘려 준비한 자신들의 디자인이 정부와 기업의 참여하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통해 취창업에 대한 동기를 다시 한번 환기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업단 관계자는 "충남 지역 내 경제활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치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충남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지도록 기대해 본다" 고 밝혔다.

그린벨트 구역서 불법 창고임대

업체 13곳 적발·15명 입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토지소유자 4명과 임차인 11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에서는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 물건 적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 영업은 불법이다.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1대당 월 4만~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3억원까지 매출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은 나머지 컨테이너를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임의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

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영업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업체가 일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홍원기자 hong@

두산건설, 자산매각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사업부 매각해 2800억 조달
부채비율 6.8% 감소할 것
전환사채 발행도 추진중

두산건설이 자산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재개편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오는 6월까지 렉스콘 사업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 공장은 렉스콘사업부가 보유한 6개의 공장 중 안양·인천·광주·울산·부산공장 등 5개다.

매각은 공장별 분리해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모는 자산양수도 1119억원이며, 울산공장의 주식양수도를 포함할 경우 1300억원 수준이다. 매수자는 정선레미콘 외 3개사다.

렉스콘 사업부는 레미콘과 콘크리트를 제조·판매하는 부서다. 앞서 렉스콘은 지난 2004년 고려산업개발과 합병으로 두산건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흡수합병으로 본사 사업부로 편입됐다.

이는 영업·연구개발(R&D) 시너지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해 레미콘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합병 전 렉스콘은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렉스콘의 지난 2013년 영업이익은 43억6385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합병 이후 지난해에는 86억원의 영업익을 기록했지만 본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렉스콘을 되팔기로 한 것.

두산건설은 이번 매각을 통해 이자비용은 연간 104억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은 기존의 158.2%에서 151.4%로 6.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150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CB) 발행도 추진하고 있어 연내 만기 차입금인 25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다.

해운대 AID, 청주 지웰의 준공과 입주로 3분기 이후 추가 유동성 자금도 유입이 기대된다.

두산건설의 현재 차입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이회사의 총 차입금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7300억원)보다 13% 줄었다. 두산건설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까지 순차입금 규모를 1조4000억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이와 더불어 현재 순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자재 사업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미국, 러시아 등에 진출해 균형있는 지역 다각화를 달성 중이고 국내 시장에서는 인천 가좌 주공2단지 재건축, 울산 대현두산위브 주택 분양 재개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를 통한 채권 회수로 현금 창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인공위성으로 건물기울기 살핀다

롯데월드타워, GNSS 도입

국내 최고 높이로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이하 롯데월드타워)에 인공위성측량시스템(GNSS)과 경사계에 의한 건물 거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홍보관에서 '롯데월드타워 초고층의 측량과 수직도 관리기술'을 주제로 시공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홍기 교수와 경동대학교 건축학과 이영도 교수, 박태식 테이즈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초고층 측량 기술과 수직도 관리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물체의 3차원 위치를 측량하는 시스템이다.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최소 4대 이상의 인공위성이 동시 관측한 측량값과 건물이 좌우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7개의 경사계 계측을 통해 건물 거동을 고려한 보정량을 산정하고 있다.

위성에서 보낸 측량값을 수신하는 롯데월드타워 상부의 인공위성측량시스템(GNSS) 기준점. /롯데건설 제공

현재 이 시스템은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Burj khalifa)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 등 초고층 건물에 도입됐다. /김형석기자

일산 킨텍스지원부지 개발 순항

한화건설, 주거복합 '킨텍스 꿈에그린' 29일 오픈

고양시가 주관하는 한국국제전시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킨텍스 개발지구)의 개발이 순항됨에 따라 이달 말 첫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화건설은 오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킨텍스(한국구제전시장) 1단계 C2블록에 1880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킨텍스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5층, 지상 49층, 10개동, 전체 1880가구 규모다. 아파트 1100가구와 오피스텔 780실로 구성됐다. 주택형별로 아파트는 ▲84㎡ 818가구 ▲93㎡ 270가구 ▲149㎡ 6가구(펜트하우스) ▲152㎡ 6가구(펜트하우스)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84㎡ 단일 평형이다.

킨텍스 꿈에그린은 킨텍스 부지에서도 정중앙에 위치, 반경 1㎞ 안에서 다양한 개발호재를 누릴 수 있다.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레이킨스몰, 전시장, 고양문화원사,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롯데빅마켓, 현대오토월드, 이마트 트레이더스(상반기 예정) 등이 가깝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2022년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강변북로(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교통망도 갖췄다. 학군으로 유명한 문촌·강선마을의 한수초·중, 주엽초·고, 장촌초, 경기영상과학고, 대진고 등이 인접했다.

단지는 기존 일산신도시에는 없는 4-bay, 2면 개방형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49층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만큼, 호수공원과 한강, 고양시가지 3면 조망이 가능하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시설, 경로당, 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킨텍스 꿈에그린 조감도.

상한제가 적용돼 아파트 기준 3.3㎡당 평균 1410만원대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일산 주거중심지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인데다 다양한 개발호재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향후 일산을 이끌어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6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과 4일 1·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4~6일 3일간 청약을 받는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605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기사제보=02)721-9861

광고문의=02)721-984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특별시
SH 에스에이치공사
www.i-sh.co.kr
서울이 더 행복해지도록
SH공사가 새로워집니다
SH
SH공사 5대 혁신프로그램
① 촘촘한 주거복지 맞춤형 공동체주택 1만호 공급 등 SH형 주거서비스 브랜드화
② 맞춤형 도시재생 낙후지역 정비, 도시재생 1조원 투자, 뉴타운대안사업 총괄수행
③ 안심 주거서비스 '하자제로' 주택건설 실현, '3 · 3 · 3 안전시스템' 구축
④ 건전한 재정기반 2018년까지 3조원 부채감축, 3조원 이상의 재원조달 다양화
⑤ 투명한 청렴·인사 투명하고 열린 인사관리,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
※SH공사 경영혁신 세부방안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핀테크' 추진 가속화, 보험업계 어떻게 달라지나

개인자동차보험 온라인 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
손보업계·생명보험업계도 온라인 인기 상승 중

기획재정부가 외환 송금업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Fintech)'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험 분야의 핀테크 추진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면서 보험 분야에도 핀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 분야에서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험 가입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만 온라인을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보험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즉각적으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자동차보험 온라인 시장점유율은 36.9%로 2005년 11.4%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용을 포함한 온라인 전체 실적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조6775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중 29.9%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 등을 다루는 손보업계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온라인 보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온라인보험을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생명보험업체는 약 2년 전(5개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1개로 조사됐다. KDB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상품을 판매 중이며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있다. 알리안츠생명과 농협생명, 흥국생명 등도 온라인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도입 추진 중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출범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홈페이지 내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금융위의 계획이다. 대상 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상품과 실손의료보험, 인터넷전용 상품 등이다. 보험업감독규정과 같은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보험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를 이미 운영 중이다.

보험 슈퍼마켓은 손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지만 제약도 존재한다. 변액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이다. 개인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온라인 내에는 설계사들이 없기 때문이다. 직접 설명을 들어도 난해한 보험상품의 약관과 구조를 인터넷 접속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보험업계 측은 보험 상품의 특약과 보장기간, 보장내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펀드 운용이 필요한 변액보험은 고객 스스로 선택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비실비, 질병 등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보장성 보험 역시 설계사를 통해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서울 평균 아파트값 5억원대 회복

전국 아파트·전세값도 동반 상승… 오름세는 다소 둔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여 만에 5억원대를 회복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5억198만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1년 6월 5억4559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전국 아파트값도 전월 대비 0.45% 상승했다. 연간으로는 총 1.9% 올랐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5.03%), 광주(3.3%), 인천(2.49%)지역의 연간 아파트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는 그동안 많이 상승한 부담감으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여전히 매매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호남선 KTX개통 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국의 단독과 연립 매매가도 각각 연간 1.16%, 1.06%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오름세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들어 3.92%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비율(전세가율)은 68.8%로 조사됐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은 강북구(70.4%), 도봉구(70.1%)를 비롯해 25개 구 가운데 13개 구로 조사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46%(연간2.44%↑) 상승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3.95%), 인천(2.91%)지역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 저금리,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달들어 연휴에 각종 기념일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해 졌고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매수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부동산시장 현장지표인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이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10.6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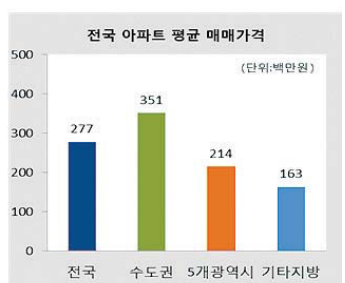
서울(115.2), 수도권(115.9), 지방 5대광역시(109.7) 등도 모두 기준지수(100)를 상회했다.

다만 상승세는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지난 3월(121.0)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월(114.1)부터 하락해 2개월 연속 둔화됐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단위:백만원)

전국	수도권	5개광역시	기타지방
277	351	214	163

교보생명 임직원·보험설계사, 네팔 지진 피해 구호 성금 기탁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고영선(왼쪽) 교보생명 부회장이 이영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에게 네팔 지진 피해 구호 성금 2억7816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교보생명 임직원과 보험설계사(FP)들이 대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탠다. /교보생명 제공

우리銀,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 출범

중금리 대출·간편송금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시범 모델인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비뱅크는 향후 설립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판매할 중금리 대출, 간편 송금 서비스를 먼저 출시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비뱅크의 '위비 모바일 대출'은 SGI서울보증과 협약해 출시하는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 최초로 타행 공인인증서로도 대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프로세스가 시범 적용된다.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모바일 페이'는 최초 한 번만 핀 번호를 등록하면 하루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는 필요 없다.

위비뱅크에는 보관함 방식 송금기능도 있다. 송금인이 의뢰금액을 위비뱅크 보관함에 보관하면 휴대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 송금 내역을 전달받은 수취인이 보관함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고정현 스마트금융부 부장은 "위비뱅크는 지속해 차별화된 신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담뱃값 인상… BGF리테일, 2분기도 웃음꽃

1인 가구 증가·소량 구매
1분기 실적 기대치 웃돌아
올 편의점 600개 늘리기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담배가격 인상 효과 등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 BGF리테일이 최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은 8842억5200만원, 영업이익은 423억1000만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7333억)에 비해 20.6%, 영업이익(111억)은 278% 오른 수준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BGF리테일 제공

업계에서는 "CU가 경기불황에도 점포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자체 브랜드 상품(PB)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양지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BGF리테일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면서 "1~2인 가구 증가와 소량 구매패턴 전환으로 소매유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종 현대증권 연구원도 "편의점과 담배 매출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12만6000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BGF리테일의 올해 편의점 점포 순증 목표는 600개로, 올해 말 기준 편의점 점포 수는 9000여개에 이를 것"이라며 "국내 편의점 산업은 점포수 증가에 따른 성장 둔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 슈퍼의 편의점 전환과 1~2인 가구 증가로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유주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편의점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실적 안정성이 긍정적"이라며 "1분기에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판매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음료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며 "저도 소주, 외산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이 가정용 주류 공급의 주요 유통 채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대표 업체인 BGF리테일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BGF리테일의 사업구조는 100% 편의점으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경쟁사에 비해효율성이 높으며 차별화 상품의 질적, 양적 확대로 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롯데칠성 '순하리' 열풍에도 저도酒경쟁 '진땀'

주류계 '허니버터칩' 현상
과도한 신비주의에 눈살
무학 '좋은데이 3색' 강세

롯데칠성이 최근 칵테일소주 '순하리'를 수도권에서 선보이며 점유율 회복에 나섰다.

순하리는 앞서 부산·영남에서 높은 인기로 품귀현상까지 일으키며 주류계의 '허니버터칩'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신비주의가 과했던 탓일까. 이 사이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하고 나선 경쟁업체 무학의 '좋은데이 3색 소주' 공세에 진땀을 빼고 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칠성 주가는 전날보다 4000원(0.16%) 내린 254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칠성은 최근 주력 제품인 순하리의 판매처를 수도권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혔지만 주가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양상이다. 다만 롯데칠성은 순하리가 출시된 지난 3월 20일 종가기준(165만5000원)에서는 현재까지 53.53%나 상승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칠성이 부진하는 사이 좋은데이 3색 소주를 내세운 무학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무학은 전일대비 300원(0.67%) 오른 4만4900원을 기록했다. 무학은 예상보다 거세게 몰아친 순하리의 인기 여파로 4월 중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좋은데이 3색 소주 출시날인 지난 11일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11% 올랐다.

롯데칠성의 순하리와 무학의 좋은데이 3색 소주는 바야흐로 칵테일소주 시장의 선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칵테일소주 인기에 불을 지핀 롯데칠성이 과도한 신비주의 전략을 내세운 것이 경쟁업체 무학에 기회로 작용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롯데칠성은 지난 25일 순하리 1000만병 판매 돌파를 기념하고 수도권 판매 확대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었다. /뉴시스

롯데칠성은 지난 3월 기존 알코올 도수에서 3도 낮춘 14도의 '유자맛' 소주 순하리를 부산·영남지역에 출시했다. 롯데칠성은 순하리의 생산 물량을 제한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과 같은 전략을 내세웠다. 여성도 좋아할 만한 순한 과일 맛에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순하리의 인기는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무학도 이에 질세라 순하리보다 0.5도 낮은 13.5도짜리 순한 칵테일 소주를 출시했다. 무학은 저도 소주에 블루베리, 석류, 유자 과즙을 첨가해 각각 좋은데이 블루·레드·옐로우로 이름 붙였다. 순하리의 품귀현상에 목말랐던 소비자들은 좋은데이 3색 소주로 눈을 돌렸다. 좋은데이 3색 소주는 제품 출시 일주일 만에 200만병이 팔려나갔다.

상황이 이쯤 되자 롯데칠성은 순하리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판매하기로 했다.

이로써 롯데칠성과 무학은 수도권의 칵테일소주 시장에서 제2차전을 벌이게 됐다.

다만 롯데칠성은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이 서로 경쟁해 판매를 감소시키는 이른바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을 부담 요소로 안고 가야한다. 순하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순하리를 많이 팔수록 처음처럼 판매는 줄어 결국에는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의 수도권 판매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정적으로는 처음처럼이나 청하(연 매출액 500억원) 매출액 잠식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매출액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칠성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80만원으로 제시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롯데칠성이 수도권 및 전국판매를 개시한 것은 장기브랜드 충성도를 위해 꼭 필요했던 전략적 결정"이라며 롯데칠성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주가를 300만원으로 유지했다. /김보배기자 bobae@

후강퉁 주식 홈페이지서 사고 판다

유안타證, WTS 서비스

유안타증권은 26일 홈페이지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통해 후강퉁 매매가 가능한 WTS 후강퉁 웹트레이딩 서비스를 오픈했다.

WTS 후강퉁 웹트레이딩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후강퉁 주식 매매가 가능한 서비스다.

외화환전과 주문은 물론 당일 상하한가·상승하락·거래상위·시총상위·신고저가 종목 등 특징종목들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후강퉁 투자정보와 기업분석 정보까지 탑재하는 등 후강퉁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적절하게 갖췄다.

특히 관심종목과 종목 호가, 차트, 주문 등의 콘텐츠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종목별 주문가능수량 단위 확인과 잔고평가 등 주문과 거래내역의 핵심 기능 또한 기존 국내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에 접속해 '주식선물옵션' 내 '웹트레이딩시스템 시스템' 실행 후 '후강퉁'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김보배기자

위클리 옵션 거래 고객에 3만원 쏜다

한국투자證, 캐시백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위클리 해외옵션 런칭 기념 Cash Back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런칭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유렉스(EUREX,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의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한달인 기존 옵션 상품에 비해 1주일 단위로 만기가 돌아와 매수비용이 저렴하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위클리 옵션을 1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현금 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CME 거래소의 해외선물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5계약당 1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단 캐시백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중국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선물옵션 Cash Back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A50선물, H지수선물·옵션, 항셍선물 등 중국관련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5계약당 1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 한도는 위클리 옵션 이벤트와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나 해외선물옵션 24시간 데스크(1577-1282), 고객센터(1544-50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기자

GS글로벌, 정택근 전보 직전 내부거래 ↑

올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733억 수익… 전기比 81% ↑

GS엔텍 통한 매출 실적 38억서 352억… 9배 껑충

<현 GS 대표이사 사장>

정택근(사진) GS 대표이사가 GS글로벌에서 GS 사장으로 이동하기 직전 GS글로벌의 내부거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GS글로벌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매출로 73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 분기 매출 403억원에 비해 81.88%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GS엔텍과 GS이앤알, GS바이오를 통한 매출 신장이 도드라졌다.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며 GS엔텍에 대한 매출은 38억원에서 352억원으로 9배 넘게 급증했다.

GS이앤알은 전 분기 거래가 없다가 올해 1분기 1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GS바이오의 경우 5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GS엔텍의 352억원은 한 분기 매출이 기존 연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GS글로벌은 지난해 GS엔텍을 통해 2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3년 매출은 113억원이다.

이처럼 내부거래 연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가 올해 1분기 급증한 것은 정 대표의 재임 동안 일어났다.

정 대표는 2009년 GS글로벌 대표이사로 선임돼 올해 3월 말까지 회사를 이끌고 지주사로 이동했다.

동시에 그는 GS엔텍의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비상무이사로도 3년 10개월간 재직하다 올해 3월 말 중도사임했다.

GS글로벌과 GS엔텍의 경영을 맡은 그가 떠나기 직전 두 회사의 내부거래가 전 분기 대비 9배 넘게 뛴 셈이다.

GS엔텍 역시 GS글로벌을 통한 거래내역이 지난해 4분기 없었다가 올해 1분기 매출 29억원을 올렸다.

현재 GS글로벌의 이완경 대표이사와 김재룡 CFO(최고재무책임자)는 GS엔텍에서 각각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정 대표는 GS글로벌의 기타비상무이사다.

정 대표와 김 CFO는 GS글로벌 주식을 각각 1만주, 340주 보유하고 있다.

GS그룹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의 사업에 대해선 알지 못하다"며 "법인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의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삼성 지주사체제 완성… 이재용 지배력 확대는 '글쎄'

삼성물산 최대주주 올랐지만 이부진·서현 계열분리 변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의되면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이 부회장 개인 지분 비율이 줄면서 그룹 승계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1년 넘게 병석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 지배력이 떨어진 가운데 지분상속 문제까지 얽힐 경우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인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일모직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합병회사의 사명은 삼성물산을 사용한다.

이번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된다.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주사 체제가 완성된 셈이다.

합병 후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6.5%가 됐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 부회장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이 나란히 5.5%씩을, 이 회장이 2.9%를 보유하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은 30.4%가 된다. 삼성SDI(4.8%)·삼성전기(2.6%) 등 계열사 등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계열분리를 할 경우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약화될 여지가 있다. 지분을 추가 인수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 마지막 관문은 이 회장 지분 상속이다. 현재 이 회장은 삼성전자(3.38%)와 삼성생명(20.67%), 제일모직(3.44%), 삼성물산(2.9%·합병 후 비율), 삼성SDS(0.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이 예정대로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승계 작업은 당초 시나리오대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확실한 교통정리가 안 된 가운데 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 부회장 삼남매의 역학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까지 개정되면 이 부회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회장 재산에 대한 홍 관장의 몫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 상속법은 혼인 후 증가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선취분 50%를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뉜다. 이 부회장이 승계를 완료하기까지 시간과 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한진기자 hjc@

"나눔 크리에이터 찾습니다" 기아차, 대학생 참가자 모집

기아자동차는 나눔 크리에이터 '레드 클로버' 참가자 모집을 26일 시작했다.

레드 클로버는 대학생의 아이디어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이동권(Mobility)이란 주제로 첫 선을 보인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7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팀별 봉사활동 세부 실행 계획 수립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가 멘토링 ▲이동 약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명사 특강으로 구성된 인큐베이팅 캠프에 참가한다.

대학생 8명과 CSR 전문가 멘토 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됐다. 5개 팀은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4주간 세부 활동 테마를 바탕으로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기아차 CSR 홈페이지(http://csr.kia.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아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6월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실시해 6월 30일 최종 40명의 나눔 크리에이터 레드 클로버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roman@

대한항공, 美 해병 헬기 정비 맡는다

5년간 500억원 규모 사업

대한항공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의 대형헬기 CH-53의 정비 사업자가 됐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2020년까지 5년간 CH-53의 창정비를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00억원 규모로 사업 기간은 6월부터 2020년까지다.

창정비는 항공기를 정비 격납고에 입고해 각종 시스템의 사전 점검, 완전 분해 후 기체 주요 부위의 상태 검사,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결함의 수리·보강과 성능개선작업으로 이뤄진다.

작업 완료 후 각 계통의 작동 점검과 시험 비행 등을 통해 완벽하게 새 항공기 수준으로 유지하는 작업이다.

대한항공은 26일 미 해병이 운용하는 CH-53 대형헬기의 창정비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미 해병 CH-53 대형헬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관계자는 "UH-60, KF-16 생산과 창정비 사업,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완제기 제작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유·무인기 종합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소리기자 10sound@

쌍용차 터키 앙카라 전시장.

쌍용차, 터키서 티볼리 판매 개시

세계 최대규모 대리점 오픈

쌍용자동차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두보인 터키에 글로벌 최대 규모 대리점을 개장하고 티볼리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현지시간)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쌍용차 터키대리점 니하트 사슈바로글루 대표를 비롯한 현지 판매점 관계자와 언론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앙카라 대리점은 쇼룸과 부품센터, 서비스센터 등을 포함해 3만㎡(약 9075평), 높이 14층 크기로 전세계 120여개국 1700여개 쌍용차 대리점 중 최대 규모다.

쌍용차는 이스탄불 모터쇼를 통해 현지에 공개된 티볼리를 대리점 최초로 전시해 일반 고객에게 본격적인 현지 판매에 들어갔다.

/이정필기자

'대박 게임' 만드는 비결… 직원 복지증진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⑮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간 소통 위해 야구관람 지원
장기근속 직원엔 특별 휴가제도
대학생에 '꿈 실현 기업' 입소문
KT·NHN 인기 부럽지 않아

한국 게임산업의 맏형 엔씨소프트(대표이사 김택진)는 단순히 게임을 잘 만드는 기업을 넘어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좋은게임을 만든다는 기조하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6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대학생들의 기업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캠퍼스 잡앤조이'의 '대학생 1000명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의 IT·인터넷·통신분야 설문조사에서 3위를 했다. KT와 NHN의 인기를 넘어선 것이다.

◆ 가족과 소통 화합 장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임직원들이 가족 구성원 간 편안한 장소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가족끼리 관람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잠실, 목동, 인천, 수원 등 수도권 경기 중심으로 직원 본인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 관람을 위해 최대 3매까지 50% 지원한다. 유모차를 가져오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통로 좌석으로 배정하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관람하는 경우는 좌석을 붙여서 연석으로 지원한다.또 오랜기간 엔씨소프트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10년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휴가나 순금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 휴가 10일과 함께 가족 여행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별휴가와 지원금은 발생 연도부터 최대 만3년까지 보장해 개인·가족 구성원의 일정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다. 5년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특별휴가 5일과 복지카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삼성전자처럼 자율출퇴근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팀장의 재량으로 팀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가족단위 야구 관람 지원	NC다이노스 수도권 경기 관람시 본인 제외 최대 3매까지 50% 지원
장기근속자 가족여행 지원	장기근속 10년 특별휴가 10일 최대 800만원 지원, 5년 특별휴가 5일 100만원(복지카드) 지급
어린이집	판교 신사옥 이전 후 기존 40명에서 200명으로 정원 늘려
건강검진 비용 지원	부모님,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50% 지원

◆ 임직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

엔씨소프트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받을때 임직원 본인 이외에 부모님과 배우자는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협력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평소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판교R&D센터에는 메디컬센터(사내병원)를 운영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으로 정식 등록돼 있는 메디컬센터에는 회사 소속으로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병원장과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총 6명이 상주해 있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진료실, 처치실, X-RAY실, 물리치료실이 마련돼 있다. 직원들은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를 포함해 IT업계 종사자들에게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까지 쉽고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공동기획 :

'웃는 땅콩' 덕분에 육아걱정 없어요

정원 200명 규모 사내 어린이집 운영
지도교사 외 간호·영양·조리사 상주

엔씨소프트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다. 남녀 불문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될 나이다.

이처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 많은 엔씨소프트는 자체 어린이집 '웃는땅콩'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엔씨어린이집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워킹맘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엔씨소프트 판교 신사옥에는 약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엔씨어린이집 '웃는 땅콩'에는 200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 구 엔씨소프트 사옥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정원(40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웃는땅콩'은 판교 사옥을 지을 때 김택진 대표이사가 가장 신경 쓴 곳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와 쿠션이 있는 바닥 마감재, 천연페인트와 광촉매제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엔씨소프트가 판교R&D센터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웃는땅콩).

'웃는땅콩'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교사 외에도 간호교사, 영양사, 조리사 선생님들이 상주해 있다. 1층 실외 놀이터, 어린이 식당, 양호실이 준비돼 있다. 또 국가에서 제공되는 기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국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에선 아이의 건강이 안 좋거나 작은 사고라도 나게 되면 바로 부모에게 연락해 언제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자녀 보육을 회사에서 도움받은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호 간의 신뢰는 실제 회사의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신세계 본점 면세점 되면 명동 주차장 된다

면세점 신규 허가 시 주차공간 확보 중요 평가 요소
해결책 없이 강행… 남대문 일대 교통난 심화 우려

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 시 주차시설 확보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서울 시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은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최대 교통 혼잡지로 꼽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본관)을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하고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교통난을 떠안게 될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 명동·남대문 일대, 요우커로 교통난 심각

26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까지 소공동과 명동 일대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608건으로 월평균 152건에 이른다. 지난해 월평균 76건(총 912건)과 비교하면 100% 이상 증가했다.

단속된 관광버스는 대부분 중국 관광객을 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90%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에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 시민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2013 서울 통행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숭례문-한국은행-명동-을지로-청계천-광화문을 잇는 남대문로의 1년간 일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승용차·버스를 합한 평균속도는 16.6km다. 서울 전체 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속도인 26.4km보다 9.8km나 느렸다.

서울에서 15년간 택시운전을 한 이모씨는 "요즘 택시로 명동이나 소공동 인근에 들어서면 꼼짝을 못한다. 관광버스가 여기저기 주차돼 있어 도로변 손님 찾기도 힘들다"며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운 본점 명품관(본관)은 관광버스와 시내버스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다.

◆ 신세계, 뚜렷한 주차대책 없이 면세점 후보지 선정

이런 이유로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시 주차시설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속에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주차 문제 해결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은 후보지인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인근 원효로 일대의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형버스 400여 대를 동시에 댈 수 있다.

여의도 63빌딩을 후보지로 선정한 한화갤러리아는 이 건물 내부 주차장과 맞은편의 한강 공영주차장을 합쳐 관광버스 약 80대의 동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강남에 면세점을 내겠다고 발표한 현대백화점그룹도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 시설을 확보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과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 중인 SK네트웍스는 각각 동대문의 피트인과 케레스타를 후보지로 확정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의 주차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동대문 피트인에는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DDP의 이면도로에는 단체 관광버스 20대가 동시에 정차 가능하다.

하지만 신세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주차장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나 신세계가 후보지로 내세운 본관은 이미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명동·남대문 지역이다.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요구되는 곳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일인 6월1일을 코앞에 두고도 신세계가 이렇다 할 주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본관을 중심으로 한 명동·남대문 일대에 주차 부지로 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남대문 시장에서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대문 시장의 경우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이면에 일반 자동차 기준 19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주차공간의 전부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세계 본관이 시내면세점으로 유치될 경우 교통난은 고스란히 인근 지역 상인과 시민이 겪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오모씨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퇴근길이 짜증스럽다"며 "마땅한 주차 대책도 없이 신세계백화점에 면세점이 유치되면 이근처가 더 혼잡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홈플러스 '바다의 날' 보양식 할인 판매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보양식 대전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복·연어·갈치·꽃게 등을 30~38%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제공

CJ오쇼핑, 멕시코 시장 진출

텔레비사와 CJ그랜드 설립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이 중남미 최대의 미디어그룹 '텔레비사(Televisa)'와 손잡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다.

CJ오쇼핑은 텔레비사와 50대50 비율로 자본금 총 2300만 달러를 출자해 멕시코에 TV홈쇼핑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텔레비사 CJ그랜드(Televisa CJ Grand)'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CJ오쇼핑은 홈쇼핑 운영을, 텔레비사는 현지 마케팅·홍보·채널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CJ오쇼핑의 현지 채널 명은 'CJ 그랜드쇼핑(CJ Grand Shopping)'이다. 멕시코 최초의 TV홈쇼핑 전용 채널이다. 내달 말부터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통해 멕시코 전체 1600만 유료방송 시청가구 중 약 70%인 1100만 가구에 24시간 전용 채널 송출을 시작하게 된다. CJ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글로벌 상품 소싱 전문 자회사인 CJ IMC의 멕시코 현지법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20여 개 품목을 개국 첫 방송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가짜 백수오' 국순당·농협까지 불똥

업계 전반으로 파장 확산

'가짜 백수오' 파장이 전통주 제조기업 국순당 '백세주'와 홍삼 건강기능식품인 농협 '한삼인'으로 불똥이 튀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백수오 제품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 중인 207개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일반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0개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주류 분야에서는 국순당이 제조하는 전통주 백세주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농협홍삼 '한삼인분'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국순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시중 판매 중인 백세주 전량을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백세주, 백세주 클래식, 강장백세주 등으로 추정 피해액만도 100억원 가량이다.

국순당에 따르면 백세주에 들어가는 백수오 원료는 전량 영주농협으로부터 납품받았다. 백세주에는 12가지 한약재가 들어가는데 이중 하나가 백수오다. 백세주 1병(375ml)에는 백수오 원료가 0.013g 들어간다.

국순당 관계자는 "식약처 검사 이전에는 한 차례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면서 " 이엽우피소가 어떤 경로로 혼입됐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식약처 조사 결과 자사 건강기능식품 '한삼인분'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가짜 백수오 성분이 혼입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농협에 따르면 한삼인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내수용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643세트를 제조해 판매처 1곳에서만 451세트를 판매하고 나머지 192세트는 이달 18일 수거해 시중에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더욱 안전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식품 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가짜 백수오 논란이 건강식품이나 일반식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100세 시대 종신까지
오~래오래 보장되는 보험!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연금보험이 정답입니다
노후는 길어지는데 보장받는 기간은 겨우 5년, 10년?
한 번 가입으로 평생가는 종신연금보험과 만나세요.
생명보험사 종신연금보험이
당신의 100세 라이프와 끝까지 함께 합니다.
평생보장
진짜종신연금보험
20년 보장
15년 보장
10년 보장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고현정, 정용진 보다 낫네

홈쇼핑 브랜드 '에띠케이' 7개월만에 매출 450억원 신세계 '에디티드'는 고전

배우 고현정이 패션 사업가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현정과 함께 기획해 론칭한 패션 브랜드 '에띠케이(atti.k)'가 7개월만에 의류·잡화를 합쳐 450억원 어치의 매출을 기록했다.

에띠케이는 태도·방식·성향을 뜻하는 에티튜드(Attitude)와 고현정의 이니셜 'K'를 딴 브랜드다. 단독 기획으로 현대홈쇼핑과 손잡고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였다.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상품은 지난 1월 16일 방송된 '클래식 울니트' 3종으로 단일품목으로 1시간에 10억원 어치가 판매되기도 했다.

고현정은 특히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만큼 기획 단계부터 브랜드 BI·디자인·원단·사이즈 등 전 분야에 걸쳐 관여했다.

현대홈쇼핑 측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좋다"며 "고현정 이름을 내세워 마케팅 효과가 크고 상품 품질도 좋아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띠케이 측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상품 구색 확대·세컨 브랜드 론칭 등을 구상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고현정의 전 남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운영하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홈쇼핑 브랜드 실적은 저조해 흥미롭다.

에띠케이와 비슷한 3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에디티드(EDITED)'는 올 2월 홈쇼핑 론칭 방송에서 약 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에띠케이가 론칭 방송에서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과는 비교된다.

에디티드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그동안 백화점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 마련 차원에서 만든 브랜드다. GS샵과 손잡고 론칭했다.

한편 고현정은 '모래시계' 등 히트 작품에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지난 1995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결혼했으나 9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연기자로 복귀했으며 2010년 9월 웅진코웨이와 손잡고 고현정 화장품으로 알려진 '리엔케이'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직접 에띠케이를 출시하며 패션 사업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롯데마트, 바다의 날 맞아 활 참돔회 선보여 26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유비끼 방식으로 작업한 통영산 활 참돔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활 참동회(1마리/250g내외)를 2만48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동원F&B "참치캔 시장 6000억 시대 연다"

건강한 참치캔 시리즈 출시 비타민·오메가369 등 첨가

동원F&B(대표 박성칠)가 건강 콘셉트의 참치캔 시리즈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섰다. 현재 4300억원 규모의 국내 참치캔 시장을 2018년까지 6000억원대까지 키울 계획이다.

동원F&B는 국내 최초로 참치에 '건강성'을 더한 참치캔, '동원 건강한 참치' 3종(셀레늄엽산·오메가369·저나트륨)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중에 출시된 참치캔들이 가미 소스나 유지, 제조법 등의 변화를 통해 맛이나 식감, 형태를 다르게 했다면 동원 건강한 참치 3종은 건강성을 더욱 강화한 4세대 참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미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참치에 비타민, 셀레늄,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원료를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영양에 초점을 둔 동원 건강한 참치 셀레늄엽산은 여성건강에 좋은 셀레늄, 엽산 등을 추가로 담았다. 150g 한 캔으로 셀레늄은 성인 1일 섭취 기준의 90%, 엽산은 6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

남성과 활력을 강조한 동원 건강한 참치 오메가369는 오메가3에 들깨유, 해바라기유 등을 통해 오메가6와 오메가9까지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균형있게 담았다.

동원 건강한 참치 저나트륨은 감마올리자놀이 풍부한 현미유를 담았다. 동원만의 나트륨저감화 기술력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

박성칠 동원F&B 사장은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참치'를 통해 국내 참치캔 시장의 제2도약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중국 등 아직 참치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머징마켓 역시 '건강한 참치' 수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피로회복 돕는 '기능성 수면용품' 뜬다

롯데마트 '여름용 구스다운 이불' 출시

최근 스트레스와 과로에 지친 현대인이 늘며 기능성 수면 용품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초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에서 20~7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 성인 남녀 수면습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숙면(熟眠)을 취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 중 건강한 숙면·자세 교정을 돕는 침구가 있다면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80%에 이르는 등 수면 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의 2014년 매출 동향에 따르면 구스다운 이불·기능성 베개·기능성 매트리스·취침등·향초 등 숙면 관련 상품들은 평균 22.74%의 매출성장률을 보였다.

숙면 상품 수요의 급증에 따라 롯데마트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구스다운 이불'(사진), '기능성 침구' 등 숙면 관련 상품들을 선보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블랙야크, 양재 신사옥 복합매장 오픈

블랙야크·동진레저(대표 강태선)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사옥에 복합매장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복합매장에는 블랙야크의 블랙야크·블랙야크키즈·마모트와 동진레저의 마운티아 등 총 4개 브랜드가 입점됐다.

블랙야크와 블랙야크 키즈는 1층과 2층, 약 600㎡의 대형 매장에 재정비된 라인업과 다양한 기능·디자인을 선보인다. 2층에 위치한 마모트는 미국 본토 아웃도어의 특징을 살린 인테리어와 소품을 구비해놨다. 블랙야크와 마운티아는 1층과 2층에 각각 캠핑 특화 존을 배치했다. 바리스타가 상주한 카페테리아도 곧 오픈할 예정이다.

식품업계 '싱글족' 겨냥 미니마케팅 후끈

1~2인 가구 신소비층 부상 미니사이즈 제품 출시 경쟁

최근 1인 가구 급증으로 미니 마케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식품업계도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싱글족 잡기에 적극 나섰다.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편의점 전용 낱개 제품으로 내놓았다. 편의점 초코파이 낱개 판매량은 초코파이 출시 41주년 기념 이벤트에 힘입어 최근 50% 가량 늘었다.

닥터유 에너지바도 대형마트에선 패키지 상품으로만 판매되지만 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 중이다. 마켓오 리얼쿠키도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삼립식품은 건강 브랜드 '테이블에잇(Table 8)'은 남기지 않고 1~2번에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미니 사이즈 식빵 2종을 출시했다. 기존 식빵에 비해 나트륨 함량을 약 25% 줄이고 슈퍼푸드인 귀리를 첨가한 귀리식빵과 설탕 대신 천연 원료인 포도농축액과 건포도 페이스트를 넣어 만든 무설탕 식빵으로 구성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탄산수 '디아망' 350mL 소용량 페트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물, 탄산음료 대용으로도 마실 수 있고 기존에 출시된 500mL 페트 제품보다 용량을 줄여 음용과 휴대의 편리성을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싱글족은 대용량 패키지 상품보다 소용량, 낱개 제품을 선호한다"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등 개인 중심적인 소비패턴을 보이며 업계의 신소비자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1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율은 2014년 26%까지 증가했다. 2035년에는 3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관광公, 中서 '문화관광교류대전'

30·31일 시안서 홍보 한마당
韓 39개·中 12개 부스 마련

중국 서부내륙경제의 중심 도시 시안(西安)의 랜드마크 성벽에서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 간 한국문화관광 홍보 잔치 한마당이 열린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삼성그룹의 시안진출 이후 이지역에 싹트고 있는 한국 열풍을 서북내륙 전역에 확산하기 위하여 '2015 시안 한중문화관광교류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15-2016 한중상호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관 39개 부스와 중국관 12개 부스가 마련된다. 한국관은 관광홍보전시관, 스마트관광체험관, 문화체험관 등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음식, 쇼핑, 미용, 웨딩, IT, 호텔, 테마파크, 공연, 항공사, 여행사, 어학연수 유관기관등 29개 우수기관과 기업체가 참가한다.

이를 통해 행사 기간 현장을 찾는 2만여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멋과 맛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 각종 할인권과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방한관광 수요를 자극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시안성벽은 연간 186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시안에서도 손 꼽히는 인기 관광지다. 현지 중국인은 물론 관광객 대상으로도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막 첫 날인 30일 밤 축하공연에는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한국을 알린다. 인기 케이팝(K-Pop) 그룹 FT아일랜드, 달샤벳과 최정상 넌버벌 퍼포먼스팀인 난타, 페인터즈 히어로즈의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 이재성 국제관광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부내륙지역 중국인들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2017년 중국인 방한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메르스 의심환자 추가… 이번엔 간호사·의사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 실시간 전환, 메르스 집중 감시

메르스의 감염 의심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의사다. 의료진 중 감염 의심자로는 이 두사람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후 3시 자가(自家) 격리중이던 2명의 감염 의심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 의심자로 추가된 두 사람 중 간호사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가 방문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접수와 채혈, 주사 치료를 한 뒤 22일부터 자가 격리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고열과 근육통, 메스꺼움을 호소해 감염 의심자가 됐다.

나머지 한 명인 의사는 또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A씨를 검진했었다.

이 의사 역시 발열, 설사 증상을 호소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한편 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감염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메르스 추가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에 더해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40개 종합병원)'를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당분간 메르스 감시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최치선기자

강강술래 "보양식으로 초여름 더위 이기세요"

곰탕·갈비탕 최대 60% ↓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원기회복과 기력보충에 좋은 보양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ml·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mℓ·10팩)는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mℓ·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홍삼·인삼을 넣은 갈비탕 박스(500mℓ·10팩)도 반값인 3만5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또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는 6만원(36%↓),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질칠한 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는 3만3000원(50%↓)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입)'를 선물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대목동병원, 내달 5일 파킨슨병 건강강좌

예방·치료·관리정보 제공

최경규 신경과 교수 윤지영 신경과 교수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파킨슨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이란 주로 떨림, 근육의 강직 그리고 몸동작이 느려지는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장애가 점점 진행되어 걸음을 걷기가 어렵고 정신·자율신경계 증상도 나타나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번 강좌는 지난 4월 11일이었던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기념해 많은 사람들에게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파킨슨병 바로 알기'(신경과 최경규 교수), '파킨슨병 치료법'(신경과 윤지영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강좌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 02-323-2541.

/복현명기자 hmbok@

쉐라톤 인천, 트립어드바이저 '명예의 전당'

5년 연속 우수 인증

쉐라톤 인천 호텔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2015 명예의 전당'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2015 명예의 전당'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5년 연속으로 '써티피케이트 오브 엑설런스(Certificate of Excellence)'를 받은 호텔에게 수여된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2011~2015년까지 5년 연속 우수 인증을 받았다. 다양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통해 투숙객들의 만족감을 높였다는 평이다.

한편 쉐라톤 인천 호텔은 다가오는 여름 시즌을 맞아 다양한 여름 패키지를 준비했다. 빈티지 체험존을 준비해 옛날 교복입고 추억의 사진 찍기, 추억의 장남감 체험, 빈티지 물품 전시 등으로 옛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빈티지 물품인 딱지, 종이인형, 제기, 공기 등을 1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도 제공한다. 7월 중순부터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플레이 존을 비플렛 야외에 마련해 어린이 게이트 볼, 샤워 놀이, 모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자세한 사항은 www.sheratoninche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2-835-1000

/김보라기자

비엣젯항공, 편도 항공권 5만장 '공짜'

내달 20일까지 특가 이벤트

베트남 국적 저비용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 '여름 휴가 초특가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이번 프로모션은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베트남 내 국내선과 인천~하노이, 방콕~하노이/호치민, 창이(싱가포르)~호치민, 타이베이~호치민 구간 편도 항공권 총 5만장이 최저 0원에 판매된다. (세금·유류할증료 미포함)

이번 프로모션은 비엣젯항공의 메인 홈페이지(www.vietjetair.com)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오후 2~4시(한국시간)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 구입한 항공권은 올 9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베트남 공휴일 제외)

비엣젯항공의 인천 발 하노이 행 항공편은 인천공항에서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출발, 오후 2시 10분(현지시간)에 도착한다. 하노이 발 인천 행 항공편은 오전 1시 45분(현지시간)에 출발, 오전 7시 5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한편 비엣젯항공은 매년 6~12대의 신규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발 모든 노선에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상시 탑승하여 한국 승객들의 편의를 책임지고 있다.

/최치선기자

KT, 420만 3G 가입자 역차별 논란

"데이터 요금제·결합할인 등 소비자 선택권 무시"

KT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분하에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면서 3G 가입자들을 역차별 한다는 논란이 스마트폰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3G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점차 축소해 소위 돈이되는 데이터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KT의 이동전화 가입자 1524만6000여명 중 423만 7000명이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27.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4명 중 1명 이상이 3G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KT가 3G 가입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3G 장기가입자 중 한 명인 장모씨는 "기존에 이용했던 혜택과 서비스가 만족스러워 요금제와 단말기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 중이었으나, LTE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서 올레 패밀리 박스, 데이터 요금제까지 3G 사용자를 차별하는 요금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LTE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3G 가입자가 줄어들게끔 하려는 꼼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데이터요금제는 급증하는 데이터 이용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한 '꼼수' 요금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고화질 동영상 등으로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통화가 줄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는 패턴 변화를 고려하면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을 늘려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3G 이용고객을 데이터요금제로 전환 유도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KT 가입자를 위한 할인 혜택 서비스와 데이터 요금제가 LTE 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존 3G 가입자들은 같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할인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고 있다.

KT의 주요 혜택 서비스 중 하나인 '올레 패밀리박스'는 지난해 10월에 출시했다. 올레 패밀리박스는 KT의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는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서비스이지만 이마저도 3G 가입자는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KT에 따르면 3G 요금제 사용자는 데이터 주고받기를 비롯해 이 상품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도 LTE 서비스 대상으로만 출시됐다. 무선 전화와 문자 무제한의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에 사용하는 3G 서비스를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거나 LTE 유심 카드를 구매해 변경해야 한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3G 가입자를 위한 주요 서비스 축소는 KT의 LTE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해석된다. KT의 박상진 마케팅부문 상무는 "3G 서비스 이용자인 '피처폰'의 ARPU가 약 1만원이고 3G 스마트폰 이용자의 ARPU가 2만5000원대"라고 밝히며 3G 서비스의 이용객 수요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을 전했다. 사실상 LTE 가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매출향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KT의 올해 1분기 ARPU는 1100만 LTE가입자에 힘입어 전년 동기 4.5% 증가한 3만2802원을 기록했다.

이에 KT측은 "3G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기 때문에 3G 고객들에게 굳이 필요한 혜택인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자 주요타깃이 다르다고 판단된 것"이라 설명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아이언맨 에디션' 예약판매

삼성 '갤럭시 S6·엣지' 오늘부터, 1000대 한정

삼성전자가 27일부터 '갤럭시 S6·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마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1,000대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아이언맨 슈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갤럭시 S6 아이언맨 에디션'은 전·후면 레드 컬러와 측면 엣지 테두리의 골드 컬러를 조합했다. 후면에는 금색 아이언맨 마스크와 함께 0001부터 1000번까지 한정판(Limited Edition) 일련번호가 각인된다.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은 64GB용량으로 국내 3개 이동통신사 모두 출시된다. 기본 구성품과 함께 아이언맨의 상징인 아크원자로 모양의 무선 충전기, 삼성 정품 클리어 커버가 포함된 특별 패키지로 구성됐다. 판매가는 119만9000원이다.

예약 판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http://www.samsung.com/sec/shop/)에서 선착순 1000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을 기다려온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사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 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어벤져스 스페셜 브리프 케이스'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 입장권 2매를 증정한다. 선착순 101번째부터 200번째 고객에게는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 입장권 2매를 증정한다.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

삼성전자 관계자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을 글로벌 최초로 국내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제품은 물론 패키지와 사은품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구성한 만큼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간편결제 '네이버 페이' 6월25일 출시

네이버가 다음달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공식 출시한다.

네이버는 26일 "1500만 가입자, 5만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페이가 6월 25일 정식버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검색부터 결제까지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원클릭 결제, 네이버캐쉬/마일리지 통합뿐 아니라 송금 기능까지 포함해 '가장 쉽고 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네이버측 밝혔다.

네이버는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 3월 24일 네이버 체크아웃을 '네이버페이'로 개편했다. 또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외환카드,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5곳을 최근 제휴처로 추가했다. 이로써 현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외환카드,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14곳이 제휴처로 가입돼있다.

올해 1월 4만여 개이던 네이버페이 가맹점은 5개월이 지난 현재 5만여 개로 늘었다. 4월 말 주간 모바일 결제 금액도 지난 1월 대비 17% 증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백화점, 플리마켓, 산지직송 서비스 등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사용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네이버 내 UGC플랫폼 등과 연계될 경우 네이버페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LG전자,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2200대 보급

LG전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날부터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대상자에게 LG전자 24형 모니터TV(24MT47G) 1만2200대를 이달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모니터TV를 컴퓨터와 연결하면 TV시청, 금융,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 모델이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청각장애인용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기존 시청각장애인용 TV에서 나왔던 불편사항들을 개선했다.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볼 때 자막이 화면을 가려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LG전자는 자막을 반투명으로 만들거나 깜빡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리모컨으로 자막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과 자막 바로가기 버튼으로 자막 설정을 간단히 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자막 글자 색을 조정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용 편의기능도 강화됐다. 텍스트를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술을 활용해 리모컨 버튼을 한번 누르면 시청중인 프로그램이 어떤 채널의 무슨 프로그램인지, 음성해설이 지원되는지 등을 TV가 음성으로 안내한다. 리모컨 버튼의 볼록 점자로 어떤 기능을 하는 버튼인지 쉽게 구별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제품을 배송·설치 후에 문자와 ARS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무상 A/S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등 제품 배송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허재철 LG전자 한국HE마케팅FD상무는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작품보다 연기 부각, 조금 부담스럽죠

영화 '무뢰한' **전도연**

'무뢰한'의 김혜경(전도연)은 살인자의 애인이다. 한때는 잘 나가는 '텐프로'였던 그녀는 지금은 변두리 단란주점 마담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한없이 쌓여 있는 빚,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먹으려고만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김혜경은 사랑이라는 진심을 끝없이 갈구하며 간신히 삶을 버텨낸다. 이영준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형사 정재곤(김남길)이 "빚지기 전에는 무얼 했냐?"며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 한다. "빚 얻으러 다녔다"는 허망한 대답에는 그녀의 애처로운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하드보일드 속 멜로에 끌려
진심인 듯 진심 아닌 거짓인 듯
사랑에 서툰 모습 감성 자극

'협녀' '남과 여' 등 개봉 앞둬
무거운 작품… 의도한것 아냐
장르적으로는 늘 열려있어요

전도연(42)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조금 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촬영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안타깝고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랑마저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서툰 김혜경에게 전도연은 깊은 연민과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뢰한' 속 세상은 느와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드보일드한 세계다. 이곳에선 인간적인 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영화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려나간다. 하드보일드에 녹아든 멜로에 전도연은 서슴지 않고 작품을 택했다. 무엇보다도 남자들에 둘러싸여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김혜경을 대상화하지 않는 시나리오에 매력을 느꼈다. 이 거친 세계 속에서 이토록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공존해서 살고 살아남고 버티고 견뎌내는가"를 보여주고 느끼게 만들고 싶었다.

전도연의 연기는 여전히 빛난다. 영화는 정재곤의 뒷모습으로 시작해 정재곤의 처연한 표정으로 끝난다. 하지만 관객 내면에는 정재곤이 지켜보던 김혜경의 모습이 오래 남는다. 얼음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순간 전해지는 처절함, 그리고 정재곤을 향해 "진심이야?"라고 물을 때의 간절한 표정이 그렇다.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뒤 전도연은 늘 연기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도연은 "작품보다 연기가 부각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제가 영화를 띄엄띄엄 해서 생긴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칸의 여왕'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여전히 고맙고요. 하지만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연기를 잘 하는 배우라고 해도 티켓 파워가 없다면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전도연이 지금 바라는 것은 '무뢰한'이 '차이나타운'에 이어 여성 캐릭터 중심의 영화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과 '무뢰한', 그리고 개봉을 앞둔 '협녀, 칼의 기억'과 '남과 여'까지 전도연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소 주제가 무거운 작품에서 감정의 폭이 깊은 캐릭터를 연기해왔다. 그러나 의도한 선택은 아니었다. "보고 싶고 찍고 싶은 영화"라는 생각에서 선택했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로 배우 전도연의 영역을 너무 좁게 가둬놓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전도연은 맨날 저런 역할만 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저 같은 배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웃음). 그저 작품 안에 저를 가두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블랙 코미디나 밝은 작품처럼 장르적으로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영화 '소수의견' 정의파 기자

배우 **김옥빈**이 다음달 25일 개봉하는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에서 정의로운 사회부 기자 공수경 역을 맡았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후 진원(윤계상), 장대석(유해진)과 함께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영화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다룬다.

대마초 사건 후 내달 복귀

래퍼 **크라운제이**(CROWN J)가 내달 3일 오전 0시 새 EP 앨범 'LOLO'를 발표한다. 대마초 사건 후 5년 만이다. 'LOLO'는 'LOW-LOW'의 줄임말로 미국에선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크라운제이는 '라이프 오브 럭셔리 온리(Life Of Luxury Only·오직 럭셔리한 인생뿐)'라는 뜻을 더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앤디 워홀 기획전 목소리

배우 **지창욱**이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 기획전 '앤디 워홀 라이브'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앤디 워홀 미술관 소장 작품을 대거 공개하는 자리다. 6월6일~9월27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M1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B2에서 열린다.

中 인기 예능 출연

정용화가 내달 1일 중국 후난위성 TV 예능 프로그램 '쾌락대본영' 녹화에 참여한다. 중화권 톱스타 임준걸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정용화는 지난달 한국 연예인 최초로 중국 시트콤 '초사남사 시즌4'에 카메오로 출연하며 현지 관계자에게 가장 현지화된 한국 아티스트로 평가 받는다. 정용화의 '쾌락대본영'은 7월 중 방송된다.

드라마 OST, 초호화 라인업 '두 토끼 사냥'

이승철·백지영·김범수·박정현 등 시청자·음악팬 사로잡아

박정현

김범수

만약 드라마에 배경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 굉장히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배경음악은 드라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기존 발표곡이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각 스토리 라인과 등장인물의 특색에 맞춰 만든 OST는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 차트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키며 시청자와 음악팬에게 고루 사랑받고 있다.

◆ 어벤져스 방불케하는 '프로듀사' OST

차태현·공효진·김수현·아이유 등 인기 스타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KBS2 금토드라마 '프로듀사' OST 역시 쟁쟁한 가수로 라인업을 꾸렸다.

가수 이승철은 자신의 새 앨범 정규 13집 '시간 참 빠르다'의 수록곡 '달링'을 '프로듀사'를 통해 먼저 공개했다. 원곡은 록 사운드가 강하지만 '프로듀사'에 실린 버전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피아노 편곡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이승철은 "제작진의 요구에 따라 곡의 분위기를 바꿔봤다"며 "김수현 씨가 하루빨리 '달링'을 불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김연우·백지영·김범수·알리·벤 등 실력파 보컬리스트는 물론 짙은·루시드 폴·하엘 등 인디신 아티스트도 '프로듀사' OST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발매된 '프로듀사' OST 중 김범수가 부른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와 백지영의 'And…그리고' 등은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안방극장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 신곡 대신 OST

TV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가수 역시 OST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최근 MBC '나는 가수다 3'를 마친 박정현은 MBC 월화사극 '화정'의 첫 번째 OST '가슴에 사는 사람'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극중 정명(이연희)과 주원(서강준), 인우(한주완)의 엇갈린 삼각 로맨스를 더욱 애절하게 만들고 있다.

'음원 강자' 씨스타 효린 역시 MBC 수목드라마 '맨도롱 또똣'의 세 번째 OST '더 가까이'를 노래했다. 극중 정주(강소라)의 테마곡으로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업템포 발라드 곡. 효린은 평소보다 힘을 빼고 속삭이듯 간절한 목소리로 노래했다.

힙합 그룹 MFBTY로 활동했던 윤미래는 솔로 앨범 발표 대신 KBS2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OST를 택했다.

윤미래의 '너의 얘길 들어줄게'는 지난 11일 발매 후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를 휩쓸며 저력을 과시했다. 래퍼가 아닌 R&B 보컬 윤미래의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가 극중 상처받은 캐릭터들의 마음을 보듬는 듯한 느낌을 준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걸그룹 카라(박규리, 구하라, 한승연, 허영지)가 26일 7번째 미니앨범 '인 러브(In Love)'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핑크빛 카라 성숙해졌네

7집 '인 러브' 발매… 타이틀곡 '큐피드'로 활동

새 앨범 '인 러브(IN LOVE)'로 컴백한 4인조 걸그룹 카라가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과거의 카라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미니 7집 '인 러브(IN LOVE)'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새 타이틀곡 '큐피드(CUPID)'는 카라만의 발랄하고 건강한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 셔플 기반의 신나는 리듬과 도입부의 신스 라인, 리듬 기타와 슬랩 베이스가 잘 어우러진 댄스곡이다.

박규리는 "섹시와 귀여움을 나누기 보단 건강하고 활발한, 에너지 넘치는 무대가 카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처음엔 귀여운 쪽으로 풀어 보려고 했는데 세부 콘셉트를 정하고 안무를 짜다보니 좀 더 성숙하게 표현됐다. 경험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 이날 카라는 데뷔 8년차 걸그룹다운 능숙한 무대 매너를 뽐냈다. 현장을 찾은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도 유창한 일본어로 답했다.

한승연은 "경쟁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인은 그들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이전의 카라보다 항상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예전보다 더 완벽한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바로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카라는 이날 미디어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디즈니식으로 재탄생한 SF 어드벤처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

■ 투모로우랜드

미래 모습 완벽 재현 이야기 설득력은 부족

천재 과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한 '투모로우랜드'에는 SF영화 마니아라면 눈을 떼기 힘든 시퀀스가 있다. 극중 평행세계인 투모로우랜드를 만날 수 있는 미스터리한 핀을 갖게 된 주인공 케이시(브릿 로버트슨)가 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텍사스의 어느 가게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스타워즈' 시리즈와 '미지와의 조우' 등 SF영화 아이템이 즐비한 가게를 보고 있노라면 입이 절로 벌어질 정도다.

영화에는 고전 장르영화에 대한 애정이 가득 녹아 있다. '투모로우랜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쥘 베른, 구스타프 에펠이 불가능을 상상으로 만드는 평행세계 투모로우랜드를 만들었다는 음모론적인 설정부터 그렇다. 형형색색의 색감으로 재현된 1964년 뉴욕 만국박람회, 케이시가 투모로우랜드에서 쫓겨난 프랭크(조지 클루니)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모험 등은 멀게는 '구니스' 같은 어드벤처 영화부터 가깝게는 '맨 인 블랙' 시리즈 같은 SF영화의 정취를 느끼게 만든다.

시각적인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신기한 도구와 장치들이 즐비한 프랭크의 집은 그 기발함으로 보는 이를 들뜨게 만든다. 어릴 적 과학상상화를 그리면서 한번쯤 떠올렸을 미래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현된 투모로우랜드의 풍경은 잊고 지낸 동심을 자극하기까지 한다.

문제는 스토리가 이토록 환상적인 영상과 설정을 설득력 있게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케이시는 프랭크와 함께하는 모험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차원을 뛰어넘는 시공간의 이동을 경험하고 에펠탑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믿기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다. 그러나 프랭크는 케이시의 질문에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는다. 프랭크의 미적지근한 태도처럼 영화 또한 관객이 영화 속 세계관에 대해 갖게 되는 궁금증에 그럴싸한 답을 주지 않는다.

영화의 주제는 명확하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지극히 디즈니스러운 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본다면 그럭저럭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다만 '라따뚜이'와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을 만든 브래드 버드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12세 이상 관람가. 5월 28일 개봉.

프랑스에서 온 섹슈얼 스릴러

"사랑은 완전범죄야"
러브 이즈 크라임
LOVE IS THE PERFECT CRIME
5월 28일,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 공개!

'러브 이즈 크라임' 내일 개봉

섹슈얼 스릴러 '러브 이즈 크라임'이 오는 28일 개봉한다.

'러브 이즈 크라임'은 '베티 블루'의 원작자 필립 지앙이 2010년에 발표한 소설 '인시던스'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한 남자를 둘러싼 세 여자의 유혹과 사랑, 그리고 완전 범죄를 그린 스릴러 영화다.

'잠수종과 나비'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국민 배우 마티유 아말릭이 주인공 마크 역을 맡았다. 영화는 여대생들과 가벼운 잠자리를 즐기기로 유명한 문학 교수 마크가 한 여대생의 실종 사건 이후 세 여자 사이에서 겪게 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영화는 로맨스와 스릴러라는 서로 다른 두 장르가 뒤섞인 감각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허니문 주말 상담회

예비 신랑 ♥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던킨 도너츠
농협은행
하나투어 본사 2층
카페 7그램
공평 갤러리
치킨뱅이
삼성생명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호선 종각역 3번출구
3
피자헛
종각역
4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1 칸쿤/라스베이거스 8일

라이브아쿠아 비치웨딩+스냅 촬영

2,862,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6월~12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달라스–라스베이거스(2)–달라스–칸쿤(4)–달라스
- 9월~11월 출발자 한정 라이브 아쿠아 칸쿤 호텔 4박 이상시, 하나투어 단독 비치웨딩 무료 제공 (~6월 4일까지 예약하시는 고객님께 무료 제공)
- 비치웨딩에 더불어 한국인 작가님과 고퀄리티 스냅촬영 1시간 제공
- 타사와는 차별화된 칸쿤 한국인 가이드 미팅/샌딩+공항 수속

02 파리/스위스 7일/8일

파리 야경투어

3,323,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0/1)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하나투어 허니문전용 테이블 및 예약제 운영 스위스 특식
- 세느강유람선과 야간 에펠탑 전망대 포함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43,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6월~12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04 푸껫 5일

르네상스 풀빌라 3박

1,0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6월~10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푸껫(3) ● 여행용 캐리어 24인치 제공(커플1개)
- 커플 500바트 현지화폐 축의금 제공
- 1인 만원 추가시 $130상당 선택관광 포함
- 피피섬, 팡아만 관광 포함

☎ 예약문의 02)2127-1234

송중기 "최전방 복무 좋은 경험"

'태양의 후예'로 연기 복귀

배우 송중기(사진)가 군 복무를 마치고 26일 전역했다.

송중기는 이날 오전 8시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전역 신고를 한 뒤 부대 앞에서 팬과 만났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팬 수십 명이 송중기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 곳을 찾아왔다.

베레모에 전투복 차림으로 나타난 송중기는 팬에게 거수경례로 전역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병장 송중기입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는데 팬들이 보내주는 소포 하나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됐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 생활에 대해서는 "힘든 점은 정말 솔직히 별로 없었다"며 최전방에서 복무한 것이 배우를 떠나 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군에서 전역한 송중기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정의 실현 '복면검사'·권력 유지 '가면'

'정체를 숨겨라' 수목극 빅매치

2015년 방송가 트렌드는 '가면'이다.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이 외모에 가려진 스타들의 진짜 노래 실력을 가름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에서도 복면을 쓴 그들이 눈에 띈다. SBS 드라마 '가면'이 5월27일 첫 방송되면서 KBS 2 드라마 '복면검사'와 동시간대 경쟁을 하게 됐다. 특히 두 작품 모두 신분을 숨긴 채 다른 인생을 사는 인물을 조명한다.

KBS2 수목극 '복면검사' 주상욱.

SBS 새 수목극 '가면' 수애.

KBS2 수목극 '복면검사'는 속물 검사 하대철(주상욱)과 열정 넘치는 감정수사관 유민희(김선아)의 활약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다. 작품은 맨 얼굴로 시도할 수 없는 일이 복면을 쓰면 가능해진다는 상상력에서 시작한다. 특히 하대철은 밤에 복면을 쓰고 법 대신 주먹을 휘둘러 악인을 처벌하는 이중적인 캐릭터다. 검사의 비리, 사회 악 등 무거운 주제를 하대철의 통쾌한 액션으로 무게 중심을 잡는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얼굴을 가린 '복면검사'와 달리 SBS 새 수목극 '가면'은 권력을 지키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신분을 감춘다. '가면'은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켜주는 남자를 통해 진정한 인생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드라마다. 수애는 도플갱어지만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인 두 여자, 변지숙과 서은하를 연기한다. 가난한 변지숙은 서은하와 죽어야 사는 위험한 거래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산다. 민석훈(연정훈)은 두 여인의 약점을 손에 쥐고 악행을 일삼을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40대 주부를 죽인 범인을 찾아라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다. 피해자는 804호에 살던 주부 김혜림. 김 씨는 두부 좌측과 우측 모두 상흔이 있었으며 전신에 골절을 입은 상태로 하늘을 보고 누운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을 둘러본 탐정은 피해자 주변인물 중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사람을 용의 선상에 올린다.

출연자 장진, 홍진호, 전현무, 하니, 박지윤은 각각 용의자가 돼 누명을 벗고 진범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전현무는 "시청자가 보면 왜 이렇게 내가 추리를 잘 하는 지 놀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범인 잡기에 나선다. 박지윤과 전현무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다. /정리=김지민기자 langkim@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복면가왕'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복면을 쓴 채 노래를 불렀던 루나, 육성재, 가희와 판정단과 MC를 맡고 있는 김형석, 김성주가 출연한다. 특히 1, 2대 가왕을 차지했던 루나와 육성재, 가희는 복면 뒤에 숨겨진 에피소드를 낱낱이 공개한다.

◆ KBS2 '추적 60분'

오후 11시 10분

'월세 시대-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편이 방송된다. 제작진은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여름이면 떠오르는 음식, 평양냉면을 소개한다. '수요미식회'에선 평양냉면을 세계절의 별미라고 칭하며 전국 곳곳의 평양냉면 맛집을 추천한다. 자칭 평양냉면 마니아 개그맨 김영철과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일(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4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3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38회)	15 불굴의 차여사 (99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16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3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4회)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3회)	00 맨도롱 또똣 (5회)	00 가면 (1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와호장룡>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 문화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뮤비뱅크 (12회)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완득이> (재)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28회) (재)		3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 프로야구 18:30 KIA VS 한화 (SPOTV+·SPOTV) 롯데 VS SK (SPOTV2) 두산 VS NC (SBS SPORTS) kt VS LG (MBC SPORTS+) 넥센 VS 삼성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04회) 55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4회) (재)	0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30 식샤를 합시다 2 (11회)	00 <극한직업>흑산도 홍어잡이	00 공공의 적 2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5회)	45 식샤를 합시다 2 (12회)	00 <태고의 땅 몽골>3부 헨티의 늑대와 알타이의 검독수리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3회)	40 수요미식회 (18회)		00 <와일드 스리랑카>1부		
22시			00 올리브쇼 2015 (18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8회)	00 온리 갓 포기브스	
23시	00 크라임씬 2 (8회)	00 고교10대천왕 (5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19회)	00 <전쟁의 대가들>엘 알라메인 전투: 롬멜 vs 몽고메리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6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4회) (재)	00 한식대첩 3 (1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6회)	00 히트	

프로농구 또 승부조작 파문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
전창진 감독 소환 방침
KBL "심려 끼쳐 죄송"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전 부산 KT 감독.

현직 프로농구 감독이 사설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3월 전창진 안양 KGC 감독(당시 부산 KT 감독)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에 3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감독은 베팅한 경기 후반에 후보 선수들을 투입해 일부러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감독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감독 등에게 도박 자금 3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채업자의 진술을 받아내고 당시 거래 내용을 담은 차용증도 확보했다.

2월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경기는 14일 KT-KGC전(63-75패)과 20일 KT-서울 SK전(60-75패)이다. 당시 KT-KGC전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경기가 갑자기 3쿼터에서 승부가 갈렸다. KT는 3쿼터에 6득점하며 무너진 반면 KGC는 22점을 쏟아부었다. SK전은 처음부터 비주전 선수들을 내보내 시종일관 주도권을 내줬다. 외국인 선수 역시 후보를 28분간 기용해 의심을 받고 있다.

농구계는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의 승부조작 사건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현직 감독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역시 후보 선수들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는 제명당했다.

KBL은 26일 "승부조작 수사와 관련해 프로농구가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농구 팬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최종 수사 결과를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볼 예정이며 만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 빠진 사이 머서 2안타

추신수는 무안타 침묵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추신수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볼넷 1개를 골라 득점에 성공했다. 시즌 타율은 0.237(156타수 37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난타전 끝에 클리블랜드 구원 투수들의 결정적인 송구 실책 2개에 편승해 10-8로 역전승, 6연승을 달렸다.

지난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부터 9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이날 마이애미와의 홈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했다.

강정호 대신 5번 타자 자리는 2루수 닐 워커가, 유격수 자리는 조디 머서가 나섰다. 워커와 머서는 각각 4타수 2안타 1득점, 3타수 2안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피츠버그는 홈런 2개를 앞세워 4-2로 승리하며 4연승을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이대호·오승환 맞대결

日 인터리그 개막… 내달 9~11일 소뱅 vs 한신 격돌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가 격돌하는 인터리그가 26일 개막한다.

올 시즌 일본 야구는 인터리그 경기를 팀당 24경기에서 18경기로 축소했다. 퍼시픽리그에서 뛰는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사진 왼쪽**)와 센트럴리그 마무리로 활약하는 오승환(33·한신 타이거스·**오른쪽**)이 마주칠 기회도 줄었다.

소프트뱅크와 한신은 인터리그 말미인 6월 9~11일, 소프트뱅크 홈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3연전을 치른다.

이대호와 오승환은 지난해 5월 24일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인터리그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쳐 이대호가 좌전안타를 치고, 오승환은 시즌 12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인터리그를 통틀어 보면 이대호는 일본에 입성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타율 0.336(271타수 91안타) 17홈런 57타점을 기록했다. 반면 오승환은 지난해 처음 경험한 인터리그에서 블로세이브 3개를 범하는 등 2패 5세이브 평균자책점 4.91로 부진했다. /김민준기자

"기성용, 미드필드 장악 스완지 도약 이끌어"

시즌 결산 팀내 최고 평점

유럽 진출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현지 언론의 올 시즌 결산에서 팀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웨일스온라인은 25일(현지시간) 스완지시티 소속 29명 선수들의 올시즌 전체 평가에서 기성용에 대해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복귀한 뒤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장악하는 힘과 자신감을 선보였고, 공격력과 책임감을 더했다"고 평가하며 9점을 줬다.

특히 "기성용이 팀에 잘 적응한 것이 스완지시티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우는 등 맹활약했다. 스완지시티 역시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최다 승점을 경신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스완지시티 선수 중 9점을 받은 선수는 기성용 외에 골키퍼 우카시 파이안스키와 주장인 애슐리 윌리엄스,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길피 시구드르손 등 4명이다.

한편 기성용은 팬 투표로 결정되는 스완지시티의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됐다. /김민준기자

2014-2015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는 기성용.

두산 새용병 로메로 영입

"유연성·장타력 갖춘 거포"

두산 베어스가 외국인 타자 데이빈슨 로메로(29·**사진**)를 영입한다.

두산은 26일 "로메로와 계약에 합의했다"며 "원 소속구단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바이아웃 금액을 비롯한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로메로는 체격 조건이 좋고 유연성까지 겸비했다"며 "간결하고 힘 있는 스윙을 구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트리플A에서 3루수 겸 4번 타자로 꾸준히 출장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7		9
1		9	5				2	
3				9				6
8				6		2		3
			8		3			
5		3		4				1
4				5				7
	3				4	6		2
7		8	3					

		7		5		6	4	
	8					7		
	3		7	2				9
9		1			5			
			6			4		3
6				9	1		7	
		4					8	
	9	8		4		1		

스도쿠 정답

2	4	5	6	1	8	7	3	9
1	6	9	5	3	7	4	2	8
3	8	7	4	9	2	5	1	6
8	9	4	1	6	5	2	7	3
6	1	2	8	7	3	9	4	5
5	7	3	2	4	9	8	6	1
4	2	6	9	5	1	3	8	7
9	3	1	7	8	4	6	5	2
7	5	8	3	2	6	1	9	4

1	2	7	9	5	3	6	4	8
5	8	9	1	6	4	7	3	2
4	3	6	7	2	8	5	1	9
9	4	1	3	8	5	2	6	7
2	6	3	4	7	9	8	5	1
8	7	5	6	1	2	4	9	3
6	5	2	8	9	1	3	7	4
7	1	4	2	3	6	9	8	5
3	9	8	5	4	7	1	2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人心不足, 蛇吞象 rénxīn bùzú, shé tūn xiàng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마트가 '강제 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 연봉계약서에는 듣기만해도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무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근로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매년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을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일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마트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한 근로시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승된 연봉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이마트 직무급제 도입 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욕심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전 이마트 대표와 상무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최대한 사용하려는 이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이정경기자 jkljkl@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IT 관련 네트워크사업을 해도 될까요
하지 않는 것이 손재수를 막는 길

Network 여자 55년 3월 22일 양력 16시경

Q 선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학을 대학에 정식 교과과목으로 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여 학교 교과목으로도 되어 있더군요.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면 Net work 다단계사업이 대세가 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IT와 관련된 다단계 네트워크에 들어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다단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악의 축으로 인식 되어 왔기에 망설여 집니다. 제 사주팔자를 미래학 관점에서 보시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해도 좋은지 아니면 뭘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사주 학에 대한 인식과 사주 속으로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순수한 열정은 시작은 있되 끝이 없어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어 남는 게 없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우면서 적마(赤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심신이 분주한가운데 늘 공허합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GNP가 3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이 되고 그것에 걸맞은 시스템과 문화가 되는데 아직은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 조사를 해보니 중국 같은 예를 보면 워낙 사람들이 많아 네트워크사업으로 돈을 벌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비정규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뜻함)가 운에서 흉운(凶運)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손재수를 막는 길이 됩니다. 보통 다단계를 좋은 말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수많은 다단계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자기들이 좋은 것이고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좋다는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물품의 시장성과 사업성을 따져 보고 호응을 하고 따라 줄 사람의 명단을 작성 해보면 성패를 판단 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 연월일시(年月日時)에서 이제는 나이 상으로 흐르게(時)에 직업군이 있지만 역마로 흐르게 되니 자칫 돈도 흐르게 됩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 막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다는 논리적으로 과거에는 무엇을 했고 앞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어서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7일 (음 4월 10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60년생**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환경의 변화는 불필요합니다. **84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습니다.

49년생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하늘과 땅이 다같이 흰합니다. **73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85년생** 님도 보고 뽕도 따겠으니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50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안좋은 습관은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51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63년생**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75년생** 노력은 했으나 결실은 만족치 못합니다. **87년생**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52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64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 **76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88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53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65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7년생**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9년생** 조급함을 버리세요.

54년생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66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세요. **78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 하세요. **90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55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수심만 가득합니다.

56년생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68년생** 기대만 컸을 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0년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92년생** 시작이 반 입니다.

57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93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58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년생**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중 입니다. **82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94년생** 업종을 바꾸지 마세요.

59년생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1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됩니다. **83년생** 병이 찾아옵니다. **95년생** 희망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계부채 위험수위' 후폭풍 대비해야

김하성의 세상보기

우리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올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기관들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난주 경기 오산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지목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은 성장엔진이 작동을 멈추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있으며, 그 부채 규모도 아시아 최대규모로 가계부채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6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들어서는 170%를 넘어섰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보다 높은 수치다.

증가속도 또한 너무 가파르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편승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1분기에 9조7000억원이 늘었고, 4월 한 달에만 8조5000억원 급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부채는 올들어 늘어난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를 합하면 이미 1100조원을 돌파했다.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부실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이자만 내는 가구가 190만에 달하고 이들 가구의 대출규모가 약 20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상가상,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9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기 전에 미리미리 거품을 제거해 대비하라는 옐런 의장의 경고를 간과해선 안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국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가계 역시 빚 부담을 줄이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삼가하는 등 닥쳐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더 늦기 전에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부국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커피, 골목상권 2차전?

기자 수첩
김 보 라
<생활유통부 기자>

"최근 커피전문점 성장이 꺾였어요. 업계가 조용해요", "요즘 '이디야'만 잘 나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커피전문점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말처럼 '이디야'의 성장세가 무섭다. 이디야는 올초 국내 처음으로 1500호점을 돌파했다. 업계에선 이런 성공 요인으로 '가격'을 꼽는다. 아메리카노의 한 잔의 가격이 4000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이디야는 2800원으로 커피가 밥값보다 비싸다는 편견을 깼다.

이런 인기 탓일까. 커피전문점들의 저가 커피 브랜드 론칭이 잇따르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달 바리스텔라를 내놓았고 할리스커피를 운영 중인 할리스에프앤비는 디초콜릿커피앤드를 선보였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저가커피 브랜드 론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지만 자본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새 브랜드로 또 다시 골목상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불황에 더해 신규 출점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브랜드로는 가맹점 확대에 어려움이 있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신규 개점 거리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커피전문점들이 기존 사업 개선에 대한 의지없이 경쟁사를 따라하며 가맹점 확대로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커피시장은 포화상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커피전문점은 지난 2012년 동네상권보호를 위해 출점 규제대상에 포함돼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이 제한됐다. 자연스레 해마다 고성장하던 매출은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카페베네의 실적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할리스에프앤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 줄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단기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환시키는 힘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는 기존 가맹점주들은 물론 영세상인들에게까지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쇼핑에 실패하는 법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여자는 피팅룸에서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의견을 물었다. 좀 짧은 거 아니냐는 말에 스커트를 벗고 청바지로 갈아 입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너무 조여 불편하지 않냐는 되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면 티셔츠를 집어 들고 거울 앞에 섰다. 분홍색이 좋을까, 하늘색이 좋을까 재보다가 배꼽이 보이겠다는 한 마디에 구매를 포기했다. 남자 친구가 착용해 보라고 권유하는 옷은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졌다.

아들은 매장 안 의자에 앉았다. 엄마를 따라 다니며 쇼핑 도우미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엄마는 들리는 매장마다 네다섯 개의 옷을 입어 보며 어떠냐고 물었다. 예뻐 보이냐고 물었고, 뚱뚱해 보이지 않냐고 물었다.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했고, 아빠가 좋아할지도 궁금해했다. 소매가 없는 원피스를 입고 나와 탑이 좋은지, 카디건이 나은지, 재킷을 덧입을지 연달아 묻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 힘들었다.

아가씨 셋이 매장을 휘저었다. 한 사람이 옷을 고르면 두 사람이 입어 보라고 권했다. 입고 나오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예쁘다, 그냥 그렇다. 앳돼 보인다, 애들 같다. 섹시하다, 야하다. 새롭다, 네 스타일은 아니다. 딱 네 옷이다,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셋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구매가 결정되는 수준은 이거 어때,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 때다.

엄마는 딸이 발랄한 아이였으면 했다. 옷도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의 아이템을 착용하기 바랐다. 딸은 자신의 외모가 남들 사이에서 도드라지는 게 부담스러웠다. 유행이 담긴 옷보다 언제나 무난함을 주는 것이 좋았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물론이고 취직을 해서 새 옷을 사러 나온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고전적 커리어우먼의 의상보다 신세대답고 개성이 표출되는 패션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삼일의 연휴 동안 시장조사를 다녀보니 쇼핑에 실패하는 법을 몸에 익힌 사람이 너무 많았다. 쇼핑이야 말로 도전이고, 모험이다. 이것은 반복할수록 멋이 되고, 개성이 되며, 자신 만의 스타일이 된다.

Hwang Kyo-An Nomination Motion Submitted Today… Beginning of Hearing Political Situation

President Park Geun-hye will submit nomination motion of Hwang Kyo Ahn as the Prime Minister to the assembly on the 26th. Cheongwadae has decided to complete Personnel Hearing and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before President Park's visit to the U.S. According to the Personnel Hearing Act, the nominee must complete the Personnel Hearing within 15 days after the submission of nomination motion. The overall National Assembly evaluation is limited to 20 days. Saenuri Party stated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Prime Minister Hwang will be completed by the 26th.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emphasized that thorough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Woo Won Shik is presently appointed as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Hearing Task Force has already begun gathering materials on the controversies regarding various suspicion of Hwang. Nominee Hwang is speeding up on his preparation for the hearing and receiving reports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at the Prime Minister nominee's office located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raining Institut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황교안 임명동의안 제출… 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국회인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새누리당도 26일 중으로 황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날카로운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대여 강경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을 특위 간사로 정한 상태다.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미 황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사실상 검증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황 내정자는 이틀 연속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담당 실·국장 보고를 받는 등 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냈다.